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신청서

○ 성 명 : 이 중 진 (李鍾眞)

프라임비뇨기과의원 (광명시, 2008년 8월 개원)



○ 학 력

1990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1999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
2002년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

○ 경 력

1998-2000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전임의
2000-2004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강사
2004-2006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2006-2008 성남 프라임비뇨기과 공동 원장
2006-현재 대한비뇨의학과 의사회 상임이사 (학술, 공보, 홍보, 총무, 보험)
2008-현재 광명 프라임비뇨기과 원장
2014-2017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이사, 의사100년재단 집행위원, 남북의료협력위원회 위원

2019년 11월 02일 실시하는 대한비뇨의학과 의사회 회장선거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2019 년 10 월 7 일
신청인 후보자 이 중 진

대한비뇨의학과 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덧붙임 서류 : 출마의 변 1부, 끝.

출마의 변

제가 의사회에서 일을 시작한 지 15년이 흘렀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제가 의사회 일을 했다고보다는 의사회에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얻었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제 그동안 배우고 얻은 것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회장에 입후보합니다. 하지만 출마를 하면서 무거운 마음을 누를 길이 없습니다. 현재 의료계는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되어있으며 이런 엄중한 시기에 과연 제가 의사회를 대표하는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임 회장님들께서 훌륭한 의사회를 만들어 오셨는데 이러한 전통을 잘 이어갈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회가 회장 한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단체가 아니고 여러 직역들이 힘을 합쳐서 꾸려가는 곳이고 10년 이상을 의사회의 각 분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잘 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자신도 있습니다.

앞서 여러 회장님들께서 중점을 두고 이룩해 놓으신 업적들이 참 많습니다. 크게 보면 아무 것도 없던 곳에 기초를 놓으셨고, 그 위에 집을 지으셨고, 인테리어를 하셨지요. 지금 우리 의사회는 더 이상 보탬 것이 없는 완벽한 단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 더 이상 보탬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밖으로 눈을 돌려 사회참여에도 힘을 쓰는 우리 의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동수 회장님께서 시작하신 난치성 환아돕기 골프대회가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좀 더 확대하여 사회적 책무에도 힘쓰는 의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까지는 발전을 위해 조금은 소홀했다고 할 수 있는 우리 의사회의 역사를 뒤돌아보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으로 남겨서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년간의 노력으로 거의 꼴찌였던 청구금액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전공의 지원도 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문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신다면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의사회 밴드는 현재 700명을 훨씬 웃도는 회원이 가입되어있습니다. 회원들에게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의사회와 학회만큼 공조가 잘 이루어지는 과가 없습니다. 서로 배려하는 일도 타과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잘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성에 안차는 부분도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도울 건 돕고 얻을 건 얻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회비 납부 등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회와의 관계가 더욱 잘 이루어져서 서로가 윈윈하는 학회와 의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선배님들께서 만들어 놓으신 비뇨의학과 의사회를 잘 계승하여 회원들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